

도, 임실호국원에서 현충일 추념식

전주·군산 등 도내 14개 시군도 각각 추념식 가져... 송하진 지사, 보훈가족 두 가정 방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는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국립임실호국원 현충탑에서 거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열린 추념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국가유공자 및 도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추모했다.

추념식은 헌화 및 분향을 비롯해 추모헌시 낭독에 이어 추모곡 독창, 송하진 도지사의 추념사, 도립여성중고교의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추념사에서 "현충일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도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념식에 참석한 기관장 및 보훈단체장 등은 임실호국원 묘역을 순회하며 참배하러 온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들을 위로했으며, 송하진 도지사는 추념식 후 보훈가족 두 가정을 방문

해 위로 격려했다.

한편, 전주의 군산, 익산 등 도내 14개 지자체에서도 각 지역의 군경묘지와 충혼탑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민족의식 고취와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다. /김진성 기자

군산시의회, AI 상황실 격려방문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5일 최근 서수면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양성반응이 접수되자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비상 근무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지난 3일 서수면에 위치한 오골계 사육농장에서 AI(H5N8)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이 농가를 통해 중간유통상적인 제주·파주·양산·부산 등 네 곳에서도 모두 AI 간이 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특히 중간유통상들은 주로 종계농장에서 사육한 닭이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식당으로 판매돼 다른 지역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아 AI 전파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시의회 의장단은 농업기술센터 방역상황실에서 서수면 관내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 발생현황과 이 농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판매한 오골계 유통과정 및 정밀조사 결과 등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농가는 철새도래지인 금강호에 인접해 있다"며 "주변 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의장은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 등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조류독감이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활동 강화와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강화 등 총력방역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 AI 발생 지난 3일 군산시의 한 오골계와 토종닭을 키우는 농장에서 시가 발생한 가운데 5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일일 상황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 가뭄대책 추진 현장점검

순창군 금과면·구림면 방문 저수지 준설 등 가뭄대책사업 신속 추진 독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6일 가뭄 대책 사업을 추진 중인 순창군 금과면, 구림면의 급수 애로지역 및 저수지 등을 방문, 저수지 준설 등 가뭄대책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특히 구림저수지는 1억4000만원(국비)을 투입, 저수지 준설공사를 추진 중인 지구로 발주 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이행하여 용수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전했다.

도는 5월29일부터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앞으로 기상상황 및 가뭄추이에 따라 지역별 가뭄현황 모

니터링 및 가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군·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별 상황을 감안한 기존 관정,양수장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 저수지 제한급수, 농경지 퇴수 재활용 공급, 하천유지용수 방류 최소화 등을 통해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 관계지는 "국민안전처로부터 가뭄대책비 20억원을 지원받아 가뭄 피해지역에 지원할 예정으로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통해 가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대학생 직무 인턴' 95명 모집 536명 신청

최종 대상자 12일 발표

전북도는 도내 대학생들에게 전공 관련 공공기관에서 현장 실무 체험을 지원하는 '2017 여름방학(7월) 대학생 직무 인턴' 신청자를 모집, 마감한 결과 95명 모집에 536명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 10개 대학(교) 학생 총 536명(남 274명, 여 262명)이 신청, 3~4학년생들이 신청자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경쟁률은 도내 대학별 홍보가 활성화되고 방학기간 활용과 실습비 지원이라는 혜택으로 대학생들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대학생 직무 인턴'은 전공분야의 공공기관 실무부서에 배치,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20일간) 인턴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고 진로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된다.

도는 인턴 자격요건 심사 및 인턴

선발에 관한 자문 등 의견수렴과 공정한 선발을 위해 참여 공공기관 및 대학 관계자, 외부관계자로 인턴선발위원회를 구성,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자 95명을 6월 12일 발표할 예정으로 도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유선으로도 통보된다.

또한 인턴의 근무요령과 멘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위하여 사전교육(OT)을 6월 하순경 추진하여 대학생 직무 인턴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고재욱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청년취업의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 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도내 공공기관의 직무경험이 취업의 연계까지 되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정운찬 등 498명, 김상조 지지 성명

"누구보다 엄격한 삶 살아"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 498명이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렴성을 주장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관에서 발표한 "김상조를 아끼는 사회 각계 인사 498명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서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삶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아 왔다"며 "김 후보자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삶을 일관되게 살아왔음을 증언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남 은마 아파트의 집주인이 청문회장에서 실거주를 증언하고, 김 후보자가 관리비 이체 내역을 공개했음에도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멈추지 않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연민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집내기용 억지 의혹을 제기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명을 듣고도 이를 억지로 외면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정도(正道)가 아니다"라며 "정치권과 언론이 김 후보자의 인격과 도덕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거두고, 정략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뉴스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실내공기·대기환경 최종점검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실내공기질과 대기환경 등 2개 분야 최종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실내공기질 점검은 주요경기가 열리는 TI 경기장과 공연장, 박물관을 위주로 내부 시설물 교체로 마감재에서 배출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등 6가지 항목을 점검하고 기타 경기장 주변 대기질은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이동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등 6항목을 점검한다.

행사준비와 내부 시설물 정비로 발생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선수들에게 두통과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고 알러지 유발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장 내·외부 미세먼지도 측정하여 선수들의 호흡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환기가 필요한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대회전까지 청정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회 조직위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은 "대회가 며칠 남지 않아 금번 점검이 최종 점검인 만큼 꼼꼼히 점검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청정무주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